

2018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공모 심의 총평

심사위원 서명 이정원 (인)
서명 하기복 (인)
서명 김은기 (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심의에 참석한 3인은 서류심의와 면접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첫째, 지원했던 4개의 단체 가운데, <성남마을 드림>의 사업은 사업대상 및 장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도 낮아 지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선정된 3개의 단체와 사업은 구리, 동두천이라는 문화 사각지대에서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의 성숙과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셋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역사적, 잠재적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장소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역사와 경험에도 있음이 동시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인터뷰 논의를 통해서 지원자와 심의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상호인식을 심화시키는 기회를 공유했다.

넷째, 마지막으로 지원신청액이 기준 지원액인 1000만원에 미달되거나 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의위원들은 <주식회사21그램>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파티에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액을 1000만원으로 확정했고, 반대로 곤도예의 경우는 지원신청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삭감해, 역시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구리, 동두천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과 지역 커뮤니티 모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